

만남

2016 10월
통권 141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	_____	3
신부님 칼럼	어린이와 같이 _____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위험 속에서의 신뢰 (시편 27.1-6) _____	5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149~151 -----	9
기도 소개	기도 _____	13
찬 양	봉헌 -----	14
공동체 소식	_____	16
지방 공동체 소식	_____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_____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_____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_____	23
미사안내	_____	24

《교황님의 10월 기도지향》

❖ 일반 지향 - 언론인

언론인들이 강한 윤리 의식을 지니고 언제나 진실을 존중하도록 기도합니다.

❖ 선교 지향 - 전교주일

전교주일에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복음의 기쁨과 이를 선포할 의무를 새롭게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2016년 11월 달까지 미사 전에 바칩니다.

†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워지라고 가르치시며 주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소서. 저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자캐오와 마태오를 돈의 종살이에서 풀어 주시고,
피조물에서만 기쁨을 찾던 간음한 여인과 막달레나를 구원하셨으며,
베드로가 배반을 한 뒤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참회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나이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보이는 얼굴이시며,
용서와 자비로 모든 이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얼굴이시니,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보이는 얼굴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나약함으로 갈아임고,
무지와 잘못에 빠진 이들과 함께 아파하기를 바라셨으니,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만나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보살핌과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소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 기쁨을 부어 주시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비의 희년이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되어,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열정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억압받는 이들과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해 주소서.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비나이다. (고개를 숙이며)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실의 계절인 10월의 첫날을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축일로 지내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크고 많고 엄청나고 화려하고 높고 대단한 것을 선호하는 시대에 교회는 작고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을 추구합니다.

큰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높은 것은 낮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도 작은 벽돌을 한 장씩 쌓아야 지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을 망치고 맙니다.

성인(聖人)을 거룩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가 거룩한 이유는 하늘의 뜻을 찾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인(聖人)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작은 것 안에 하늘의 큰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인(聖人)은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찾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작은 꽃(小花)입니다.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작은 것 안에서 하늘의 뜻을 찾고 따랐던 그녀의 향기는 멀리 갑니다.

이번 한 달, 손에 묵주를 쥐고 당신도 작은 꽃이 되십시오.

❖ 위험 속에서의 신뢰 (시편 27.1-6)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한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3 “주님은 나의 목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저희의 빛, 구원, 생명의 요새이신 주님, 당신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 주님, 저희가 당신께 온전히 의탁하고 당신께 희망을 두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한 분이 시편 2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 2 악인들이 내 몸을 집어삼키려
달려들지라도
내 적이요 원수인 그들은
비틀거리다 쓰러지리라.
- 3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친다 하여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를 거슬러 전쟁이 일어난다 하여도
그렇지라도 나는 안심하리라.

4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고
 그분 궁전을 눈여겨보는 것이라네.

5 환난의 날에
 그분께서 나를 당신 초막에 숨기시고
 당신 천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로 나를 들어 올리시리라.

6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로
 이제 내 머리를 치켜들어
 나 그분의 천막에서
 환호의 희생 제물을 봉헌하고
 주님께 노래하며 찬미 드리리라.

1.(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2.(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3.(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내 삶에 있어서 아쉬움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혹은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을 때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프란치스코 성인이 고향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물을 길어올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큰 물통을 내려 물을 가득히 담은 후 끌어올릴 때 항상 조그마한 나무토막 하나를 그 물통 안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하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물을 퍼 올릴 때 이 나무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되어 물이 밖으로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어요. 나무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제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 반통밖에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하인의 이 설명을 들은 프란치스코 성인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후에 자기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네.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나무토막을 던져 보게나. 그러면 곧 마음의 물통이 안정될 걸세.”

인생의 환난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평화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키고 보호하심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마음에 새깁시다.

“주님께서 친히 네 앞에 서서 가시고,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버려두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 (신명 31,8)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 41,10)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1장 “주 나의 목자 되시니”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준주성법 제 2 권

내적 생활로 인도하는 훈계

교리149

제5장 자신을 살핌

1 은총과 깨우침이 부족한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빛이 있다 해도 미소微少한 것이며, 게다가 그것마저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 빛을 순식간에 잃어버린다. 또한 우리는 자주 내적인 눈이 먼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자주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핑계를 대며 더 약해진다. 어떤 때 우리는 사욕에서 한 것을 마치 열정으로 한 것처럼 생각한다. 남의 조그마한 잘못은 책망하면서, 우리의 더 큰 잘못은 간과해 버린다. 남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는 빨리 헤아리지만 우리가 남에게 고통을 준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 자기 사정을 바르게 잘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은 남에 대하여 엄하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2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지내하는 일에 힘쓴다.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돌보는 사람은,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는다. 내적 생활을 하고 신심 있게 살려면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네 생각이 오로지 너 자신과 하느님께만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너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또 자신의 일을 제쳐놓고 모든 일에 시시콜콜 참견하였을 때, 무슨 거룩한 결과가 나왔는가? 참다운 평화와 화합을 바라거든 반드시 모든 것을 제쳐놓고 너 자신을 직시해야 한다.

3 네가 세상 모든 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로우면 대단히 크게 발전할 것이다. 잠시 지나갈 세상의 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큰 실수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혹은 하느님의 것 외에는 위대한 것도, 고상한 것도, 즐거움을 주는 것도, 마음에 드는 것도 없다. 어떠한 위로든지 그것이 세상 사물에서 오는 것이라면 순전히 헛된 것이라 생각하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느님보다 열등한 그 모든 것을 하찮게 보기 때문이다. 하느님 홀로 영원하시고 무량無量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며, 그분 홀로 영혼의 위로이시고 마음의 참된 즐거움이시기 때문이다.

교리 150

제6장 어진 양심의 즐거움

1 착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의 어진 양심이 이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심을 어질게 가져라. 그러면 항상 즐거운 것이다. 양심이 어질면 역경을 겪더라도 많은 수고를 참아 견딜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양심이 불량하면 두려움이 그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네 마음이 너 자신을 꾸짖지 않는다면 유쾌하고도 평안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잘한 다음 이 아니면 즐거워마라. 죄인들은 결코 참된 내적 즐거움이나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사 57,21)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악인들이 “우리는 평화 속에 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또 누가 우리를 감히 해치랴.” 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마라. 하느님께서 곧 분노하실 것이며, 그때에는 악인들의 행위는 허무로 돌아가고, 그들의 생각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2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역경을 기꺼이 영광으로 삼는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로 영광을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끼리 주고받는 영광은 잠깐일 뿐이다. 세속의 영광에는 항상 근심이 따른다. 그러나 어진 사람들의 영광은 그 양심에 있지, 사람들의 입술에 있지 않다. 의인들의 즐거움은 하느님에게서 오며, 하느님 안에 있으며, 그들의 위대함은 진리에 기초한다. 참되고 영원한 영광을 원하는 사람은 현실의 영광을 도모하지 않는다. 지나가 버릴 영광을 찾거나, 혹은 마음에서 그것을 떨쳐 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칭찬이나 비난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큰 평화를 지닌 사람이다.

3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쉽게 만족을 누리고 평화를 얻을 것이다. 네가 칭찬을 듣는다고 더 거룩해지지 않고, 책망을 듣는다고 더 천해지지도 않는다. 너는 그대로 너다. 너 자신이 하느님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 네가 네 속이 어떠한지 잘 살핀다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 무엇이든 하든지 상관치 않을 것이다. 사람은 얼굴을 보고 가치를 헤아리지만 하느님은 마음을 보신다. 사람은 행동을 살피지만 하느님은 그 뜻을 살피신다.

항상 잘하면서도 자신을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한 영혼의 표징이다. 세상 피조물 속에서 아무런 위로도 찾지 않는 것은 강한 신앙과 위대한 순결함의 표징이다.

4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분명하게 하느님께 의탁한 사람이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다.’ (2코린 10, 18 참조) 내적으로 하느님과 더불어 살면서 외적인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것이 곧 내적 생활 상태다.

교리 151

제7장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함

1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를 낮추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위하여 다른 모든 사랑을 포기하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홀로 모든 것 위에 사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거짓이며 항구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되며 항구하다. 피조물에 마음을 둔 사람은 그 피조물과 함께 사라지지만, 자신을 예수님께 바친 사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를 두고 떠나거나, 그래서 너를 영원한 죽음에 내버려 둘 때에도 너를 떠나지 않을 그분을 벗으로 삼아 사랑하라. 너는 좋든지 싫든지 반드시 모든 것과 헤어져야 할 때가 있다.

2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예수님께만 매달리며, 그분의 영광에 너를 의탁하다. 모든 것이 다 힘을 잃을 때 그분만은 너를 도우실 수 있다. 네가 사랑하는 분은 다른 것에 사로잡힌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네 마음이 당신만을 향해 있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마치 임금이 자기 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네 마음에 당신이 머무시기를 원하신다. 네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서는 기꺼이 네 안에 머무르실 것이다. 네가 예수님을 제쳐 주고 사람들에게 모든 신뢰를 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완전한 실패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믿지도 말고 의탁하지도 마라.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사 40,6-7)

3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살핀다면 금세 속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편안함과 유익함을 찾으면 자주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네가 너를 찾으면 분명히 너를 발견하겠지만, 그것은 곧 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온 세상과 그 사람의 모든 원수들이 가하는 해보다 더 큰 해를 스스로에게 입히기 때문이다.

비안네 신부

기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위험에 처하여서도
 겁을 내지 말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고통에 처하여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인생과 싸워서 이길 스스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심스러운 공포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자유를 내가 싸워서 이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너무너무 내가 기쁘고 성공할 때만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게 마옵시고,
 매일매일 내가 슬프고 괴롭고 남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배고플 때 하느님이 내 손목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155

동 헌

김종성

사 람 들 은 우 리 를 바 라 보 지 만
잠 시 지 날 세 상 은 줄 아 보 이 나

우 리 들 은 사 랑 해 그 분 만 - 을

그 러 나 사 랑 은 소 - 금 처 럼
춷 - 불

자 기 를 녹 이 는 아 픔 - 이 - 있 네 세 상 의
태 우 는 슬 픔 - 이 - 있 네

모 든 것 을 버 리 고 - 님 을 따 르 며

F G⁷ Em Am Dm G G⁷

주 게 받 은 내 몸 을 - 다 시 바 치 리 - - -

C AM⁷ C⁷ A⁷ Dm G⁷sus⁴ G⁷

나의 몸 과 맘 - 나의 생명을 - 주 님 을 위 해 서 - -

아 C AM⁷ 아 C⁷ A⁷ Dm G⁷

자유의 나라 - 희망의 나라 - 지 금 여 기 에 -

아 - 아 - -

C F Fm C/G G⁷ C

나 이제 돌아 갑니다 - - 당 신 의 품 으 로

4 D.S. C Fm/C C Fine

세 상 의 로 품 으 로

❖ 10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데 레 사 (St. Teresa)	김 점 님 최 영 숙	18일	루 카 (St. Luke)	안 태 호 이 동 빈
2일	안 젤 라	민 경 은			
	프란치스코 (St. Francis)	김 진 호 김 재 영	22일	살 로 메 (St. Salome)	정 명 옥
4일	프 란 츠 (St. Franz)	김 기 현	23일	이냐시오 (St. Ignatius)	윤 용 기
	프란치스카 (St. Francisca)	양 현 호 김 인 순 이 정 은			
	프 랑 크	김 기 년			
7일	로 사 리 아	송 화 현	28일	시 몬 (St. Simon)	김 동 수 최 화 영 최 순 남
15일	아빌라 데레사 (Avila St. Teresa)	임 소 아 조 인 회			
16일	말가리다 (St. Margaret)	강 순 행			

❖ 10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리지외의 데 레 사 (St. Teresa)	김영자(B) 황옥순(H) 정옥선(H) 김경자(H) 노금순(O)	15일	아빌라의 데 레 사	임진영(O)
4일	프란치스코 (St. Francis) 프란치스카 (St. Francisca) 프 랑 크	부준우(O) 임종수(O) 조우성(H) 윤주해(B) 안수경(O) 정유진(H)	18일	루 카 스 (St. Luke)	이현석(H) Setiahardja Ulung(O)
7일	로사리아	조현영(B)	30일	루 실 라	권명옥(O)

❖ 10월 성가번호

10월	입 당	봉 헌	마 침
2일	480	221	271
9일	24	217	246
16일	62	210	254
23일	455	212	63
30일	21	218	271

❖ 10월 미사 전례 봉사자 ❖

10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2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김형웅(야고보) 김정자(젼마)	이현묵(요셉) 이정수(토마스)	3구역
9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곽케빈(요셉)	4구역
16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이정훈(요나스)	윤예진(모니카) 허선애(임마누엘라)	주일학교 복사단	청년회
23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배성우(도밍고)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복사단	요셉 마리아회
30일	김애란(세실리아) 김매자(베로니카)	김치수(도밍고) 김영희(클라우디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1구역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18일
계(€)	204.59	245.16	208.41	396.85

❖ 자진헌납금 ❖

2016년 8.22 — 2016년 9.18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헌금납부 :

정마리아, 정정숙, 신옥희, 김기현, 김형웅, 이수웅, 배성우, 우동천, 이기열, 이경규, 이정수, 이현묵, 이영희, 이석우, 한선지, 안지영, 현영애, 이공종, 손수희, 육종인, 박성아, 진윤희, 최장용, 강순행, 강신행, 최순남, 박종래, 민경화, 이종화, 윤예진, 최승진, 김건, 김경미, 이중지, 이수현, 이정은, 서세원, 김민수, 심동근, 김용일, 한말조.

구좌입금 :

김유석, 김원자, 최화영, 허채열, 방조 영자, 이영원, 이명원, 이성원, 이상봉, 아일링호프 정숙, 김부남, 오옥수, 강일남, 홍경영, 남궁 춘배, 최성자, 김대현, 김수혜, 백정선, 최현봉, 김치수, 김진호, 김동수, 허두욱, 서유미, 허길조, 곽케빈, 권지연.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월부터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가 교황님의 권고에 따라 바쳐집니다. **일시 : 2015.12.8 - 2016.11.20**

2.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3주일(16일)을 제외한 **모든 주일미사 전 14:15에**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합니다.

3. 10월 8일(토) 10:30분 주교좌성당에서 야쉬케 주교님 퇴임미사가 봉헌되어 집니다. 주교님께서는 9월 29일 75세로 공적퇴임입니다. 기도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참석 바랍니다. 후임 주교님께서 선별 되실 때까지는 각 미션을 이끌어 주십니다.

4. 10월 14일(금)은 함부르크 교구에서 준비하고, 모든 미션 공동체가 함께하는 성모 마리아 축제입니다. 장소는 주교좌 성당이며 시간은 18:00부터 시작합니다. 각 미션 소개, 각 미션 성모님 전시, 성모 예식이 봉헌되어 집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합시다.

5. 2구역 소공동체는 마리아 축제로 인하여 한 주간 미루어 집니다.

6. 10월 22일(토), 13:00부터 레지오 단원교육이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7. 예비자 교리로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방은일, 황태엽, 한규호**,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31
2. 8월 20 일 토요일, 공동체 에서는 Cuxhaven 바닷가로 소풍을 갔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맛있는 음식과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친교 이루었습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갖습니다.
2. 매달 첫째 주 토요일 15:00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갖습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9월 24일 토요일 17:00 김형철 마리오, 이진아 비비안나 가정에서 소공동체 기도모임을 갖었습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 역 장 모 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각 구역장	각 구역장 참조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윤 예 진 모 니 카	0157 5483 9145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 현 목 요 셸	6011594	
			총 무	이 경 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정 경 숙 안 나	6729549	
청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부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1 867 2858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반 장	심 은 희 안 나	0157 8045 2206	

10 월 중 행 사 예 정 표

(목주기도 성월 - 전교의 달)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토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선교의 수호자) 대축일		브레멘 공동체
2	일	연중 제27주일(군인 주일)	사목협의회	
3	월	개천절		
4	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5	수			
6	목		꾸리아	
7	금	목주 기도의 동정 마리아	복음 나누기 기도회1	
8	토	한로	야스케 주교님 퇴임 미사 10:30 MarienDom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9	일	연중 제28주일 한글날	청년 소공동체	
10	월		독일 사목자 회의 - 14일(금)	
11	화			
12	수	순교자 박대식 빅토리노 치명일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13	목			
14	금		성모 마리아 축제 18:00	Marien Dom
15	토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하노버 공동체
16	일	연중 제29주일		
17	월	안티오키아의 성 이나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18	화			
19	수			
20	목			
21	금		2구역 소공동체	
22	토		레지오 단원 교육	꾸리아
23	일	연중 제30주일 (연중 제30주일, 전교 주일) 상강		
24	월			
25	화			
26	수			
27	목		연령회	
28	금	성 시몬과 성 유다(타대오) 사도 축일		
29	토			
30	일	연중 제31주일		
31	월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최 영 숙 데 레 사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한글** ◆

발행인	최종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본당신부님	viannae@hanmail.net H.P : 0176 8464 7981
편집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첫 째, 둘째 금요일 17시 30분(복음 나누기회, 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테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 H.P : 0157 5447792